



3면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5월 2일 목요일 (음 3월 24일) 제3496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민들 “국제영화제 보러 왔어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찾은 전주시민들이 배우들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시 제공)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열흘간의 영화 여정 떠나다

개막작 상영... 43개 국가 232편 작품 선보여

세계적인 독립영화 축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오후 7시 30분 전주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렸다. 작년에 이어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이날 개막 선연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열흘간의 영화 여정을 떠나다. 이번 개막식 사회는 배우 공승연·이희준이 맡았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인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을 상영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43개 국가, 232편

의 작품들이 팬들과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간다. 이외에도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하는 '다시 보다'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가 6편이 마련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자리도 갖는다. 앞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국내의 영화인 700여명이 차례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축제 열기를 더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노후 산단, 혁신거점 탈바꿈

시, 국토부·산업부 '2025년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 공모 선정
내년부터 2027년까지 5개 분야 23개 사업에 국비 1519억 등 2843억원 집중 투자

노후화된 전주 제1·2 일반산업단지 등 전주지역 5개 산단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지역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거점으로 탈바꿈된다. <관련기사 16면>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지난 3월 29일 사업계획서를 냈고, 지난달 29일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2025년 노후거점 산업단지' 대상지는 확정됐으나, 어느 사업에 얼마가 어떻게 투입되는지는 6개월간 지문위의 자문을 거쳐 하반기인 12월에 구체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부분은 전주의 5개 산단이 각각 특성을 가지고 서로 잘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산단이 미래산업 거점 산단으로의 혁신을 이뤄내면, 생산액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전주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강경제체 전주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열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제1·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친환경 첨단복합산단과 전주 도시첨단산단이 정부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혁신적인 산단 대개조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업지구 선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의 물결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거점 산단인 전주 제1·2 일반산단, 연계 산단인 전주 친환경첨단산단(1단계, 3-1단계)과 도시첨단산단 등 5개 산업단지를 미래산업 거점 산단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이들 5개 산단에는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선도 산단 및 밸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23개 사업에 국비 1,519억원과 지방비 354억원, 민간자본 980억원 등 최대 2,84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혁신밸리를 비전으로 거점 산단인 제1·2 일반산단을 '미래 산업 생산거점지구'로 만들고, 연계 산단인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을 각각 '소부장 특화를 통한 소재공급지구'와 '혁신기관 집적을 통한 R&D 지원지구'로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연계를 이뤄내 전주 산업을

의 '판'을 바꿔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57개 스마트공장 도입과 생산액 8,645억원 증가, 신규 고용 창출 3,387명, 친환경에너지 설비·플랫폼 114건 도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전주 경제의 100년 미래를 여는 신흥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은 전주 제1·2 일반산업단지가 기존의 노후 산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공간으로 도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판을 바꿔 전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본사 인사

▲이만호
임: 부장
명: 정치부 겸 제2사회부
(5월 2일자)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전북자치도,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일환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등 도내 다양한 계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는 생애주기별 취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와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먼저, 돌봄 취약계층 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280명으로 확대한다. 긴급돌봄은 노인인구 증가, 가족 부양역 변화로 인한 가족 내 돌봄 감소 등으로 공공에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상에서의 보호체계를 형성하는 등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험터 퇴소 청소년의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험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으로 험터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연내 40차례, 8,050명 검진을 목표로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65세 이상 비율이 20%(전북 20.4%, 전국 15.5%)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읍·면 지역의 경우 병·의원(56.7%), 약국(40.5%)이 없는 곳이 많아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 취약지역에 현장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 건강검진비용으로 1인당 22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하이, 아이 지원사업(위기가동 500가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 정착 인니멘토단 운영 △전기간전 취약가구 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특정도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장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다.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